

# 부동산 광고 냈다 약탈 미술품 발각

## 나치 약탈 '귀부인의 초상' 80년만에 소재 확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유대인 수집가에게서 강탈된 그림이 80여 년 만에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다.

네덜란드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화가 주세페 기슬란디의 작품 '귀부인의 초상'이 최근 부동산 매물 광고 사진 속에 등장해 발각됐다. 이 그림은 나치 독일 공군 사령관이었던 헤르만 괴링의 재정 고문이었던 프리드리히 카드기엔의 가족 소유 주택 거실 벽에 걸려 있었다.



▲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포착된 '귀부인의 초상' 사진=SNS

사고로 사망했으며, 그의 컬렉션 중 최소 800점이 괴링에 의해 강탈됐다. 2000년대 초 네덜란드 정부 조사를 통해 약 200점이 반환됐으나, '귀부인의 초상'은 행방불명 상태였다.

괴링의 '오른팔'이었던 카드기엔은 전쟁 후 남미로 도피해 1979년 아르헨티나에서 사망했다. 그는 스위스를 거쳐 미국 당국에 자신이 '진짜 나치가 아니다'라고 속여 망명했으며, 중앙정보국(CIA) 기록에는 "가장 교활한 인물 중 하나"라고 묘사돼 있다.

광고 사진 속 그림은 국제적으로 '나치 약탈 미술품 목록'과 네덜란드 정부의 공식 '나치 약탈 예술품 명단'에 등재된 작품과 치수·색채가 일치한다는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다. 네덜란드 문화재청(RCE)의 아넬리스 클과 페리 슈리어는 "복제라고 볼 이유가 없다"며 "최종 확인은 그림 뒷면의 표식이나 라벨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견으로 구트스티커의 후손들은 미국 변호사를 통해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머느리 마레이 폰 사허(81)는 "1990년대 말부터 시아버지의 예술품을 되찾기 시작했으며, 단 한 점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그의 유산을 되찾고 복원하는 것이 가족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작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미술상 자크 구트스티커가 소장했던 수백 점의 예술품 중 하나다. 그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향하던 중 화물선에서

한편, 네덜란드 문화재청은 카드기엔의 다른 딸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사진 속에서도 네덜란드 화가 아브라함 미뇽의 정물화 한 점을 확인했으며, 이 역시 나치에 약탈당한 작품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 교통부 장관 140마일 과속 직접 영상 찍어 올렸다 벌금

튀르키예 교통장관이 직접 올린 영상 때문에 과속 사실이 드러나 벌금을 부과받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아브둘카디르 우랄오울루 튀르키예 교통장관은 최근 수도 앙카라 인근 고속도로에서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X에 올렸다. 그는 운전석에서 민속 음악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달리는 장면을 공유했고, 영상 속 계기판에는 시속 118마일에서 140마일까지 속도가 표시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85마일이었다.



▲ 튀르키예 교통장관이 올린 영상 캡처, 사진=SNS

며 과속으로 벌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는 "앙카라-니네 고속도로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짧은 시간 제한 속도를 넘었다"며 "영상을 올림으로써 사실상 스스로 신고한 셈이었다"고 적었다.

장관이 게시한 벌금 고지서에는 과속 사실과 함께 벌금 9,267리라(약 225달러)가 명시돼 있었다.

이 영상은 X에서 5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를 모았고, 댓글만 1,600개 넘게 달렸다. 우랄오울루 장관은 "속도 제한 준수는 누구에게나 의무"라며 "앞으로는 훨씬 더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랄오울루 장관은 몇 시간 뒤 같은 영상을 다시 올리

# 엘살바도르 학생 두발-복장 검사

## 학교서 단원 모집 갱단 차단 나서

엘살바도르가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의 머리와 교복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추진하는 학교 규율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과거 갱단의 주요 모집처였던 학교에 다시 집서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 ■ 군복 입은 교육부 장관의 지침

신임 교육부 장관인 카를라 트리게로스는 군의관 출신 현역 육군 대위다. 군복 차림인 그는 지난달 모든 교장들에게 학생들의 단정한 교복 착용, '적절한' 머리 모양, 정중한 인사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침을 담은 메모를 발송했다. 트리게로스 장관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행정적 책임 방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규정은 있었지만 그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이발소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학생들이 짧게 머리를 깎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풍경이 이어졌다.

### ■ 학부모들 대체로 환영

부켈레 대통령은 메모를 직접 공유하며 "우리가 꿈꾸는 엘살바도르를 만들려면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교사노조도 새 지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학생 규율을 잡으려던 교사들이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았으며,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번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비판자들이 학생들을 억압한다고 몰아간다"며, 한편으로는 여학생들이 트리게로스 장관에게 사인을 요청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비꼬았다.

부켈레 정부는 최근 갱단들이 학교를 통해 세력을 재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수도 샌살바도르의 세 개 공립학교에서 40명 넘는 학생이 체포됐다. 현재까지 갱단 연루 혐의로 8만8천 명 이상이 수감된 상태다.

# 시니어 메디칼 무료 신청 및 관리

## 65세 이상 메디칼 신청 도와드립니다.

- 자산 폐지로 인한 메디칼 자격 쉬워져
- 인컴으로만 메디칼 신청 가능
-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싱글 메디칼 신청 가능
- Share of Cost 분담금 삭제 신청

이제 메디칼 신청 / 메디칼 서류 관리를 하나로! 매주 목요일 부에나팍 오피스에서 상담드립니다.

2025년

## 시니어 메디칼 자산제한 폐지!

\*\*\* 65세 이상 보유 재산 규정 없애 \*\*\* 인컴 조건만으로 메디칼 신청 가능!



# KCSS 시니어 서비스 213.220.6620 / 323.628.5376